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밀그림 본격화

총 사업비 1조980억원 규모…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민관 거버넌스 출범·기본계획 용역…내년 11월 구체화

전남광주특별자치 여수시가 1조원대 규모
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 청사 이순
신홀에서 서영화 시장과 해양수산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민
관 거버넌스,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민관
거버넌스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
모에 선정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부터 무
술목 일원까지 이어지는 해양관광 자원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이다.
총사업비는 1조980억원 규모다. 이 가
운데 공공 재정사업에 2000억원, 민간투
자사업인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에 8880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 재정사업의
기본구상과 거점별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운영·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섬과 바다, 해안 경관 등 여수의 해
양자원을 활용해 체험형 해양레저와 체류
형 관광, 해상교통 등을 연계하고 민간투
자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단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체류시간
과 관광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마
련하는 것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여수의 주요
해양관광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관광
에서 벗어나 체험과 휴양, 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청사 이순신홀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민관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자치 여수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
영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가동됐다.
이날 출범한 민관 거버넌스에는 광주특
별시와 여수시를 비롯해 해양레저·관광·
도시 분야 전문가, 지역 대학, 청년·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거버넌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정
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특
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앞으로 분기별 민관 거버넌스를 운
영하고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1조원이 넘는 사업 규모에
걸맞은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민
간투자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서영화 시장은 “이번 사업은 여수가 가
진 천혜의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레저

와 체류형 휴양,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 새
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핵심사업”이라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
으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으로 만들
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민수 기자 swg3318@gwangnam.co.kr

강진 수국, ‘스마트 재배’로 사계절 생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의 대표
화훼작목 가운데 하나인 수국이 스마
트 재배기술을 통해 사계절 생산 기
반을 조성한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 공동면
김승찬 수국 재배농가에서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심층화 연시회’를
열고, 환경제어 기술을 활용한 수국
연중생산과 농가 경영 경쟁력 강화 모
델을 선보였다.
연시회는 기후와 계절 변화에 영향
을 크게 받는 수국 재배에 스마트 기
술을 접목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
련하고,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효율

을 마련했다.
특히 냉난방과 탄산가스 공급 등 환
경제어 기술을 활용하면 외부 기상 여
건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를 줄이고 수
국의 생육조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
리할 수 있다. 운반레일과 무인 방제
기를 통해 반복적인 농작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절감 효과도 기대된
다.
이날 열린 연시회에는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농업기술원 관계자와 강진
군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수국 재
배농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과 주요

환경제어 기술 활용…작업 효율·생산성 향상

냉난방·무인방제 등 설치…산업 경쟁력 강화

향상 등 농가 경영 개선 가능성을 현
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심층
화 사업’은 전남도가 품목별 우수 농
가를 선정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경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다른 농가로 확
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승찬 농가는 2025년 9월 사업 대
상 농가로 선정됐으며, 총 1억원의 사
업비가 투입됐다. 이 가운데 보조금
8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을 들어
수국의 안정적인 생산과 작업환경 개
선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췄다.
농가에는 수냉식 냉난방기와 운반
레일, 탄산가스 발생기, 상하 흔들식
무인 방제기 등이 설치됐다. 스마트팜
작업장에 필요한 판별·전가·콘크리트
공사도 마무리해 온도 등 재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했다.
특히 냉난방과 탄산가스 공급 등 환
경제어 기술을 활용하면 외부 기상 여
건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를 줄이고 수
국의 생육조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
리할 수 있다. 운반레일과 무인 방제
기를 통해 반복적인 농작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절감 효과도 기대된
다.
이날 열린 연시회에는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농업기술원 관계자와 강진
군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수국 재
배농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과 주요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광양시, 첫 공감토크…시민과 함께 ‘대전환’ 모색

정주여건·지역경제·복지 등
현안 논의·자유로운 즉문즉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시민들
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
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 광양수산
물유통센터에서 제1차 ‘광양 대전환! 공
감토크’를 열고 지역경제와 AI·디지털 교
육, 교통안전, 복지 등 지역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환 시대!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형식적인 간담회에서
벗어나 박성현 시장과 시민들이 점심을
함께하며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
으로 진행됐다.



박성현 시장 등이 광양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제1차 ‘광양 대전환! 공감토크’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청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소상공인 경
영 부담 완화와 시설 개선, 이순신 먹거리
타운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활성화, 기존
상권과 신시가지의 상생, 청년 창업과 지
역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교육과 미래산업에 대한 의견도 이어
졌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디지
털 교육 확대와 기업·대학 연계 진로교
육, AI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 등이 논의
됐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기
술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교육
을 확대하고, AI를 행정과 시민 생활에 적

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인구 유입과 정주환경에 대한 관심도
컸다. 시민들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과 돌봄, 문화, 생활환경 등 삶의 전반적
인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지역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산업·항만·해양
자원과 지역 문화콘텐츠를 연계해 관광만
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축제 간 연계와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과 지역 상
권을 연결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생활안전과 복지에 관한 목소리도 나왔
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면허·2인 탑승
과 장기 방치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 어
린이 통학환경 개선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시니어 일자리 발굴
등이 논의됐다.
시장 운영과 재정에 대한 질문도 이어
졌다. 시민들은 한정된 재원을 어떤 기준
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지, 시민들
의 제안이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
는지 등을 묻고 행정의 투명성과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서에서

검토한 뒤 결과를 제안자에게 회신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광양 대전환! 공감토크’를 통
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
할 방침이다.
박성현 시장은 “시민들이 광양에 살면
서 느낀 점과 더 나은 도시를 위한 생각을
직접 듣고 시정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아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
해 광양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고흥, 피서철 바가지요금·위생관리 점검

관광지·해수욕장 주변·다중이용시설 등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주요 관
광지와 해수욕장 주변, 다중이용시설 등
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위생관리 실태
를 점검하고 현장 지도에 나섰다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식품위생감시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피서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 업소, 다중이용
시설의 가격표 게시 여부와 요금 준수 여
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부당요금 청
구 등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
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업소별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영
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서비스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적정 가격 준
수,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위생관
리를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도 피서철 관광객이 많이 찾
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가와 위생관리 실태
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광객과 지역 상
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신뢰
받는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고흥을 찾는 관광
객들이 불편이나 불쾌함 없이 안전하고
즐거움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광지 주
변 업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지속하겠
다”며 “상인들도 적정한 가격과 철저한
위생관리,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동
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장흥, 가뭄현장 농업용수 긴급 공급

레미콘 동원·330t 공급…소방차도 동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지속되
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긴급 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가뭄으로
장동면 만년리 일원 농경지의 농업용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대
응에 나섰다.
군은 가용 가능한 소방차를 비롯해 민
간 레미콘 차량까지 급수 지원에 활용하
며 지역 여건에 맞춘 신속한 용수 공급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장동면 복교리 위치한 대성레미콘
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레미콘 차량 2
대를 가뭄 현장에 투입해 330t이 넘는 용

수를 공급했다. 대성레미콘은 장동면 삼
정마을 일대 농가의 농업용수 부족 해소
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급수 지원에
힘을 보탤다.
장흥소방도 소방차를 활용한 급수 지원
에 나서며 가뭄과 폭염이 겹친 현장의 긴
급 용수 확보를 지원했다.
군은 현장에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는 농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
인하는 한편,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급수 지원과 안정적인 용수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요 수원 현장을 지속
적으로 점검하고, 가뭄 피해 최소화에 행
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